

광산구, 내 집 앞 '맨발 좋은 길' 조성 박차

주요 근린공원·도심 산책로 13곳 총 32개소 목표... 걷기행사도 추진



광주 광산구가 도심 내에 황토를 깔아 만든 맨발 산책길을 시민들이 걷고 있다.

광주 광산구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쾌적한 일상 속 '맨발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29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맨발 걷기 열풍'에 따라 시민이 자주 찾는 공원, 녹지 공간을 중심으로 내 집에서 가까운 맨발 산책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삶의 질,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일상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걷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어 최근엔 땅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강조하며 맨발로 걷는 운동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맨발 걷기는 자연과 우리 신체를 연결한다는 의미에서 '어싱(Earthing)'으로도 불리는데, '접지'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에 좋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를 즐기는 인구만 1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광산구에서도 감지된다.

특히 수완지구 원당산공원에선 맨발 산책로 조성 이전부터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결성해 등산로를 맨발로 걷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 산책로가 있음에도 휴길이나 난 곳으로 건너가 어린이공원 한 편을 맨발 걷기 산책로로 이용하는 주민도 늘고 있다.

최근엔 구정 등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만들 어달라는 주민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광산구는 이러한 현상이 건강과 여가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보고, '맨발 걷기 좋은 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수요조사와 주민과

의 간담회 등을 통해 공원, 완충녹지,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돌이나 나무뿌리 등이 노출돼 있는 휴길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맨발로 걷다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 정비로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부터 우선 사업지로 선정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지난 9월 풍영정천변길근린공원 산책로에 마사토로 된 160m 길이의 맨발 보행로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나른배미근린공원 70m, 초록어린이공원 50m, 송정근린공원 200m, 대상근린공원 200m 등 이달까지 총 8개소 1845m의 맨발 보행로 조성을 완료했다.

마사토, 황토 포장 등 맨발 길 종류, 보행로 길이는 각 공간의 특성, 주민의 이용 형태 등을 반영했다. 맨발로 걷는 시민을 위한 세족장, 노선 안내판, 휴게 의자 등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삼암근린공원, 역산근린공원, 첨단1동 완충녹지 등 5개소(총 5005m)도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올 연말이면 광산구에 맨발 길 13곳이 새롭게 조성될 전망이다.

광산구는 향후 추가로 19개소에 맨발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해 총 32개소를 운영한다는 목표다. 구는 맨발 걷기 좋은 길을 활성화하고, 건강을 위한 시민의 걷기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맨발 걷기 행사 개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맨발 보행로와 관련한 갈등을 예방하고, 쾌적한 길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를 통한 길 관리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구의 맨발길이 시민의 맨발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하게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맨발 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5·18 세계의 기억, 세 개의 기록'

5·18기록물 세계유산 등재 12주년 학술대회... 30일~12월1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30일부터 12월1일까지 기록관 7층 다목적강당에서 '5·18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12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문화재청이 주최하고 전남대 5·18연구소, 광주여성가족재단, 5·18기념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의 기억, 세 개의 기록'을 주제로 '5·18 이후 기억투쟁 기록'과 '오월여성 기록', '5·18 공공기록'에 대해 논의한다.

'5·18 이후 기억투쟁 기록'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진행으로 ▲강한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의 '5·18의 수도(修道)-5·18 기억하기와 기록하기'에 관한 단상들 ▲전용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의 '5·18피해자단체 및 연대조직 형성과 변화 과정의 재조명' 등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고, 김을튼·김지영 전남대 5·18연구소 전임연구원이 참여해 토론을 이어간다.

'오월 여성 기록'은 박강배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의 사회로 ▲정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팀장의 '젠더 관점으로 바라본 공공역사의 실천과 전망' ▲이춘희 전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팀장의 '오월 여성을 다시 기억하여 기록하다'에 대한 발제에 이어 이영진(강원대 인류학과)·이정선(조선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등이 토론한다.

'5·18 공공기록'은 ▲유경남 5·18국제연구원 부장의 '기록의 공공성과 열병' ▲김태현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5·18아카이브의 공공성과 기관 비평'에 대한 발제에 이어 윤지현 백기완 노나메기재단 기록물보존관리위원과 이정연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가 토론한다. 사회는 이동일 부산민주화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이 맡는다.

12월 1일 열리는 네트워크 회의에는 국회도서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근태기념도서관, 4·16기억저장소, 4·16민주시민교육원, 부산민주화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공원, 부마민주화쟁기념재단, 대구국제보상운동기념사업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등 전국 각지 시·도·별 민주주의와 인권 기록물을 소장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들이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30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기록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추후 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홍인화 5·18기록관장은 "5·18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세계가 5·18을 함께 기억하기로 약속했다"며 "세계가 함께 기억해야 할 5·18이 어떤 기록을 통해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는 지금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마음으로 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산구, '올해의 SNS' 인스타그램 부문 최우수상

광주 광산구는 "제9회 2023 올해의 SNS(누리소통망) 인스타그램 부문에서 기초자치단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 한국소셜컨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제9회 2023 올해의 SNS'는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누리소통망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광산구는 '제13회 대한민국 SNS' 최우수상, '2023 소셜아이디어워드' 대상에 이어 최고 권위의 '올해의 SNS'까지 3개 상을 휩쓸며 전국 최고의 누리소통망 활용 지자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올해의 SNS' 최우수상에 선정된 광산구 인스타그램은 딱딱한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구의 주요 소식과 정책을 특색있고 차별화한 콘텐츠로 제작·홍보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선 8기 구정 구호를 담은 공모전 영상, 맨발길 '슬리백', '꽃 찰린지' 영상 등은 단일 영상 조회수 5만 회 이상을 기록하기로 했다.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6개 누리소통망 창구를 운영하는 광산구는 지역 내 명소와 복지 및 교육 프로그램, 각종 행사와 축제 소식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또 다양한 시민 참여 이벤트와 'SNS 홍보파트너'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 창구로 누리소통망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광산구 누리소통망이 구의 다양한 소식은 물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전파하는 소통과 홍보 창구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순세계잉여금·고향사랑기부제 활용 재원 확보를

윤혜영 광산구의원, '지방재정위기' 재정 구조조정 방안 제시

윤혜영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동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사진)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악의 재정난 속 '광산구 재정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해 관심이 집중됐다.

윤 의원은 지난 23일 제284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2023년도 국제수입 결손 규모가 약 59조 원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 또한 IMF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광산구는 재정준비가 높아 충격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이어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더 감액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존 재원 비중이 높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업무추진비 삭감, 행사·축제성 사업 부류 등 자체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고정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입·세출의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원을 확보하고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재정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세입을 통한 재원확보방안으로 순세계잉여금 활용과 고액·상습 체납처분,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선 "전년도 결산 기준 989억 원 규모로 대폭 증가했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263억 원이 편성됐다"며 "면밀한 추계와 적극적인 활용으로 대응한다면 고마운 세입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전년도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무려 337억 원에 달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세수 확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세출 측면에선 사업지출의 체질 개선과 성과목표관리제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안심식당' 집중 홍보

광주 광산구는 "연말을 맞아 '광산 안심식당' 이용을 독려하는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산 안심식당'은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음식점을 광산구가 직접 지정한다.

현재까지 지정된 광산 안심식당은 총 379개소로, 광산구는 지속해서 현장점검과 신규 업소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

'광산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업소는 다섯 가지 감염병 예방 활동인 매일 소독, 마스크 착용, 개인 접시 제공, 위생적 수저 관리, 손소독제 비치 등을 실천하고 있다.

광산구는 시민이 '광산 안심식당'을 쉽게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업소에 '안심식당'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검색 시 지정된 음식점은 상호 위쪽에 '안심식당'이 나타나도록 했다.

광산구는 송년회 등 모임이 많아지는 연말 광산 안심식당 이용이 활발해지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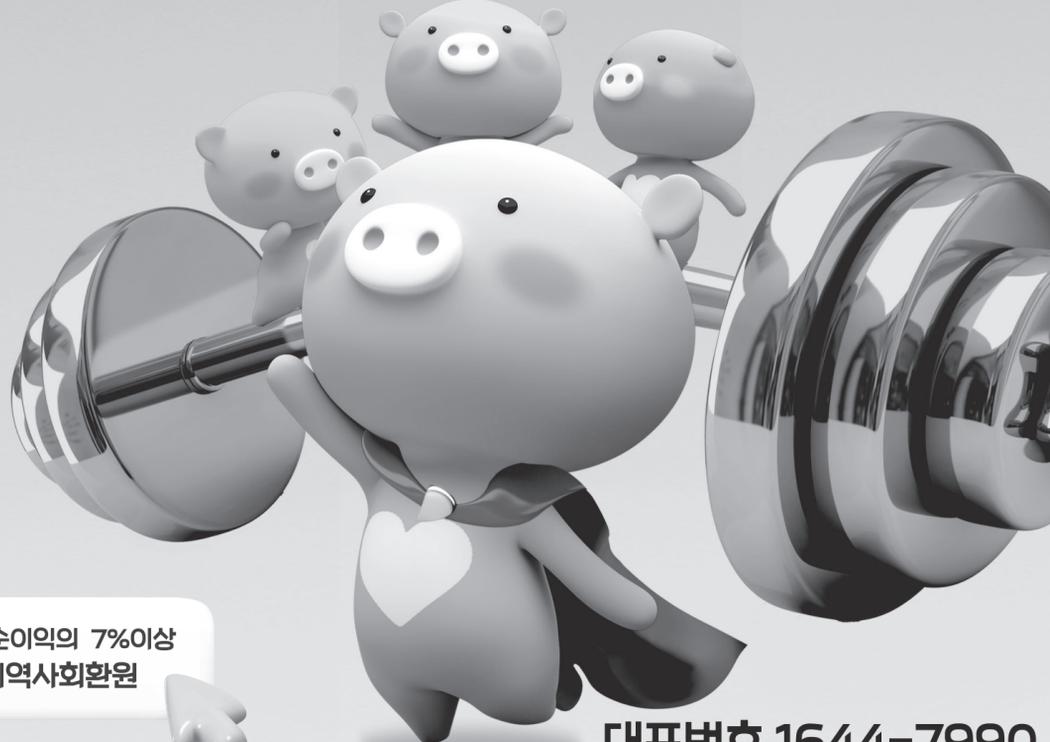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힘으로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광주문화신협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